



천주교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http://www.sjkoreancatholic.org/>

9 순교자 성월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루카 9.23-26

2010.9.19

금주의 강론

(정원순 토마스데 아퀴노 수사 신부님 강론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먼저 연상되는 것은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통, 아픔, 고난으로 다가오는 십자가를 피하지 하고 매일 짊어지고 갈 방법은 없을까요?

사람이 고통이나 두려움을 당하면 그 상황에

대해 직면하거나 회피한다고 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행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행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불가피한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용기

를 내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견디어 낼 수 있다고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의 의미를 찾는다면 고통에 대한 수용력은 더욱 넓어지는 반면에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아마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전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 일 것입니다.

오늘 ‘성 김 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에 성인들께서도 자신들의 순교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셨기에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순교자의 후예들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구역별 성가 경연대회

언제; 9/19(일) 본당의 날을 기념하여 경연대회를 교중 미사후에 개최
지정곡; 사랑이 없으면 (415) 또는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496)중 1 곡 선택
자유곡; 각 구역에서 선정.

- 필립보 네리 형제님 막내 **Stephen**이 오는 **9월25일(토)**에 Fremont Symphony와 협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조하시고, 티켓구입과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필립보 네리 형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4(일) 예정이었던 협연은 핀란드에서 열리는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 본선에 참여해야 하는 관계로 협연이 취소되었습니다. 본선은 두달 후인 11/21-12/2까지 열리오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가대 야유회를 9월 26일(일) Sylvan park 600 Sylvan Ave. Mt View 94041에서 교중 미사

오늘의 말씀 사탕

“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2코린 1. 2)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1분 명상

“용서”



용서하는 순간
분노와 원한과 슬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용서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으며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 황용희의 《가시올타리의 증언》 중에서 -

*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가 하는 어떤 행동을 미워하다 보면
나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뒤돌아 보면서 마음을 열면
건강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몸이 좋아 하는 건강음식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